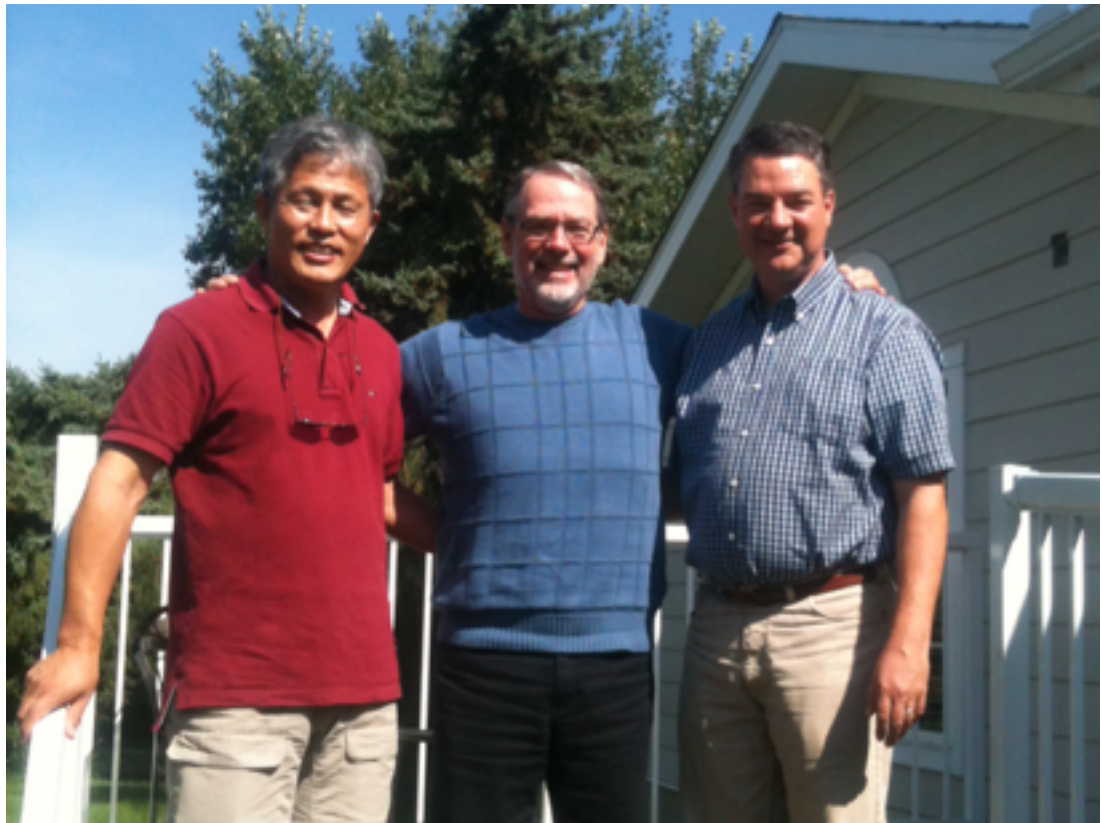


김 문영, 이 순양 선교사 (캐나다 인디언) 선교.

선교 동역자께 인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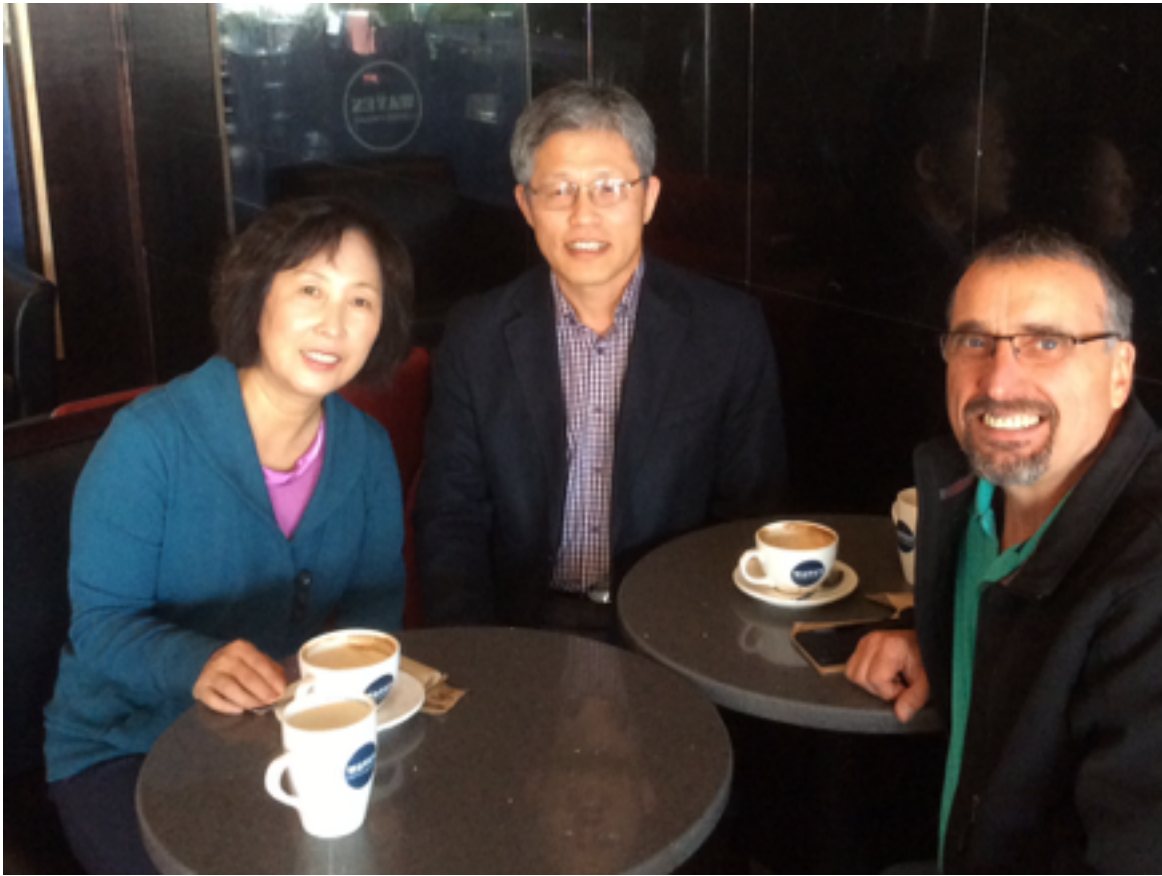
캐나다 8개월차 신임 선교사로써, 정착하랴,, 사역이해를 위한 인디언 부락 방문하랴,, 선교 전략세우랴,,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인디언들의 강직한 성품때문에, 그리고 유럽인들의 침략과 강탈로 인한 깊은 피해의식으로 인해서 백인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있지만, 협력하며 동역한다면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단체를 만났습니다. 인터랙티브 미니스트리(Interactministry)라고 하는 초교파 선교회인데, 이 선교회는 현재 54 가정의 선교사들이 러시아, 알래스카, 캐나다 여러지역에서 원주민(인디언)대상으로, 그리고 캐나다 이민자들 중 모슬렘, 힌두인, 불교인들을 위한 교회개척, 제자양육, 교육사역, 청소년 사역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들로써 20년 혹은 30년동안 묵묵히,,그리고 성실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김 문영 선교사(좌측), 데일 스미스(선교회 대표, 중앙), 그레익 해밀턴(행정 책임선교사, 우측)

2 달전에, 김 선교사 부부는 선교회 사무실을 방문해서, 선교회 대표를 만나서 인디언 선교에 대한 비전과 소명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역을 소개 했고, 굉장히 긍정적인 협력방안을 논의 했습니다.



이 순양, 김 문영 선교사, 댄 메이얼 선교사 (선교회의 사역 책임자)

선교회 사무실을 방문한 뒤 2주 후에, 실제 사역을 총괄하는 댄 메이얼 선교사를 처음 만나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인디언 부락에서 살지못하고 캘거리 도시에 나와서 살고 있는 많은 인디언들을 위한 교회개척을 위해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댄 선교사는 캐나다인으로 캘거리에서 15년정도 인디언들을 위한 목회를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인디언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한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역자가 될것 같습니다. 댄 역시 큰 기쁨으로 저희를 맞이하고 동역사역에 마음을 활짝열어 주었습니다.

여러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지도하고 상담하고 사역전체를 총괄지도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댄은 우리 부부가 인디언 마을이나 인디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리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다른 선교사들을 소개시켜주기도 하고, 선교사 기도회도 같이 참석하면서, 뜻밖의 문이 댄을 통해서 열리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댄 우드다드 선교사, 김 문영 선교사

같은 이름을 가진 또다른 선교사 댄 우드다드와의 귀한 만남도 있었습니다. 미국인으로 특히 캐나다의 인디언들을 위해 30년을 사역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아프리카에서 20년 사역했지만, 이분들에게 초심으로 돌아가서 겸손히 배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고 새롭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댄 우드다드 선교사는 음악을 좋아하고 피아노 연주의 특출한 달란트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인디언들을 위한 교육에 전념하고 있는중입니다.

캐나다와 알래스카 전체지역을 다니면서, 인디언 지도자들 교육에 힘을 쏟고있습니다. 제가 남아공에서 했던 사역과 연관성이 있어서 서로에게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두명의 댄 선교사와 함께, 캘거리에 인디언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지도자들 양육에 나머지 인생을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복미 원주민들이 복음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그려 봅니다.

2014년 11월 17일 캐나다에서 김 문영, 이 순양 선교사 드립니다.

기도제목

- 1) 인터랙트미니스트리 선교회와 아름다운 동역선교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 2)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머지 삶을 살수 있도록
- 3) 캐나다의 높은 생활비가 사역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